

#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 Dual Earner Families' Child Care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부교수 김 선 미\*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Seon-Mi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alternatives for childcare among dual-earner families and discussed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development. Eight employed married women and two of their husbands were interviewed about work-family balance. All the interviewees complained that taking care of the children in dual-earner families is a challenge. They resort to all available alternatives because public childcare support is insufficient and inadequate. There were five different types childcare: extended family network,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aid help (nannies), rearranging work schedules, and training their children to take care of themselves. However, all these alternatives entail various problems. More and better childcare facilities and programs should be built and after-school programs should be designed. On the other hand, parents should also make more effort to prioritize children's needs in finding a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주요어(Key Words) : 맞벌이 부부(dual-earner families), 양육방식(childcare alternatives), 공보육(public childcare), 방과후 학교(after school program)

### 1. 서론

이 연구는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로서 맞벌이 가족의 아내 여덟 명과 그 아내의 남편 둘로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가정경영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결과 맞벌이 가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할 때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자녀양육이었으며, 가정경영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과제는 바로 이 자녀양육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 그에 따라 연구자는 녹취록 가운데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서술하고, 그로부터 국가의 육아지원정책에 반영될 만한 사실들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성은 근로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개별 가정에서 맡아 키울 수 없는 아동을 국가가 대신 맡아 키운다는 선별주의적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왔다(이재인, 김선미, 김은정, 2005: 22). 즉,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개별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보육에 대해서만 잔여적으로 국가가 개입한다는 접근방식을 취해옴으로써, 일단 보육을 가정의 일차 책임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맞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육의 책임은 가정이 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여성들이 취업지속에 장애를 가져왔다. 그 결과 어린 자녀를 기르는 여성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취업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들이 속한 가정의 육아부담도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책들을 사용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1) 2004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 영아를 둔 모의 취업률은 25.8%, 유아를 둔 모의 취업률은 38.1%, 초등학생을 둔 모의 취업률은 47.4%였다(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구명숙·홍상욱, 2005: 532에서 재인용).

\* 주 저 자 : 김선미 (E-mail : yupy1005@hanmail.net)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은 두 가지 추가적 사항을 더 지적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육시설의 출발이 2-5세 아동의 주간탁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0-2세 아동의 주간 보육과 모든 아동의 야간 및 주말보육 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미취학연령대 이외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즉, 보육정책의 범위가 미취학아동에 집중됨으로써 취학아동과 청소년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은 여전히 개별가정의 몫으로 남아 있다(이재인외, 2005: 23-27).

이와 같이 기혼여성이 취업한 맞벌이 가족의 자녀를 돌보아 줄 공적인 지원체계의 부족함과 부적절함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크며, 가사에 대한 부담이 큰 여성의 경우<sup>2)</sup> 역할과중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그 핵심에 양육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이미숙, 2004; 185-187).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양적 연구결과에 따르면(김태홍·김난주, 2003), 맞벌이 가족의 보육은 조부모 친지 혹은 파출부 그리고 어린이집과 놀이방 유치원 학원에 의존하되,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와 친지나 파출부가 기르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아동의 연령이 만 3-5세를 지날수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원 등에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구명숙·홍상옥, 2005; 535에서 인용한 내용을 발췌). 지금과 같은 보육정책상황에서 맞벌이 가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질적 접근법을 취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양육방식의 맥락과 문제점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출생 후부터 자립할 때까지 맞벌이 가족의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육체계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족들이 대처해온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지침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 편, 흑실드(2001: 329-346)는 풍부한 가족생활을 공유하려면, “가족의 요구를 줄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부터 다시 돌아서라”고 한다. 즉 직장에 쏟는 시간을 줄여 가사를 분담하면 가족의 요구를 줄이지 않고 또 가족의 요구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맞벌이로 인해 자녀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인 국가의 보육정책 혹은 육아지원정책 그리고 근무형태의 변화를 포함한 직장환경의 변화에 덧붙여 무엇보다도 사적으로 부부가 다 ‘집안 일’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한지수·김준희(2005)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을 유형화할 때 연구대상 남편은 개인유지중시형(39%),여가중시형(35%),수입노동중시형(26%)로서 가사노동을 중시하는 취업남편이 없는 반면, 부인의 대부분(65%)은 가사노동중시형이며, 수입노동을 중시하는 유형과(21%), 개인유지중시형(15%)이 소수 있고 여가중시형은 없었다. 맞벌이 부부간 시간사용에서도 성역할분리형상을 뚜렷하게 관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양육되는 아동의 복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개별 가족의 차원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맞벌이 가족 자녀들의 생활모습**을 그려보고 그 속에 반영되는 **자녀양육의 문제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후 **맞벌이 가족이 채택하는 양육방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양성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서 각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마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양육정책의 개선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지침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1. 연구방법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로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자녀를 기르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아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중·고등학생 자녀와 달리 초등학교자녀는 부모의 돌봄이 보다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연구대상들의 양육경험 속에서 자녀들의 영·유아기 양육방식도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기위해 연구자의 거주지에서 연구대상을 접촉해야 했는데, 당사자들의 경험에 반영된 양육방식의 문제점을 찾고자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이 연구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조용환, 2002; 28) 준거적 표집방법에 의존하였다. 연구자 거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족과 관련된 정보가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면 모집단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준거적 표집방법 가운데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알음알음으로 공무원과 교사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례에 접근하였고 비교적 소수이지만 사례의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여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판매직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연구자의 질문에 기꺼이 응답해주고 토속적인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주로 인터뷰는 낮 시간동안 제보자의 직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퇴근이후 제보자의 가정 혹은 연구자의 가정에서 이루어 졌다. 제보자의 가정에서 면접한 경우 남편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가정환경에 관한 간단한 관찰이 가능하지만 제보자들 가운데에는 시간내기가 직장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자가 살고 있는 광주의 네 사례 진주의 네 사례를 합해 모두 여덟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차 면접 후 두 사례는 남편들을 추가로 면접하였다.

심층면접은 광주지역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진주지역은 ○○○ 선생님께서 하셨다. 두 연구자는 면접의 질문을 공유하고 한 사례의 면접이 끝날 때마다 대상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

를 즉시 작성하여 교환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에 대해 토의하였다. 다시 말해 녹취록을 분석하면서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보다 생생한 느낌이나 면접당시 가지게 된 문제의식 혹은 향후 면접에서 중시해야할 혹은 추가해야할 질문 내용을 포함한 연구 스케치를 반드시 면접 당일에 교환하였다. 또한 녹취록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제보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제보자의 몸짓 혹은 면접도중 일어난 에피소드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녹음기로 녹취된 면접 자료는 전사(全寫)하였으며, A4용지로 총 300쪽의 분량에 이른다<sup>3)</sup>.

질문은 결혼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도록 한 후 확인질문 혹은 반대질문 등으로 답변을 보다 자세히 듣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은 답변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최대한 회피하였다. 녹취자료의 분석 결과 제보자가 이야기를 주도하였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이 최초의 주제가 되기 쉬웠으며 가사분담을 놓고 남편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나 남편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장에서의 경험보다 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야기가 수렴되어 갔다.

## 2. 연구대상

일-가정 양립을 제대로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양립이 어려워 깨어진 가정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 맞벌이로 인해 이혼했거나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포

기한 경우를 통해 문제를 보는 방식이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관한 연구결과들(이숙현, 2004)을 보면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 등도 이유가 있지만, 어린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한 다른 대체제가 없는 경우가 주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제외하고 현재 그러저럭 일-가정을 꾸려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연구할 때 참여관찰을 하거나 적어도 부부를 모두 면접하는 방식이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 연구는 가족생활관리자인 아내들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왜냐하면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가족생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인 여성에게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제약도 원인이 되며 자신의 남편을 면접하도록 소개하는데 꺼려하는 제보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남편이 느끼는 갈등은 알 수 없으며 드러난 경우에도 아내의 눈으로 본 것에 국한된다. 그러나 추후에 접촉하여 두 사례는 남편들을 추가 면접하였다.

자녀들의 연령을 제한한 결과 제보자들의 연령은 30세부터 40세까지로 드러났다. 자녀수는 여섯 사례가 두 명이었는데 세 자녀와 한 자녀를 둔 사례도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의 수와 여성의 일이 관련되는 방식으로서 세 명인 경우에는 이제 잘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며, 한 명인 경우는 일 때문에 한 명밖에 낳지 못해 몹시 아쉬우며 특히 한 아이에게 형제를 갖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다. 직업별로 보면 두 명의 중학교 교사와

<표 1> 제보자특성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남편	자녀
윤희숙(40) 광주	법원 기능직 (총16년, 결혼 후 15년째)	42세 법원 일반직	아들(14, 중1) 딸(11, 초4) 딸(7, 유치원)
윤금순(36) 광주	대학교 사무직원 (총18년, 결혼 후 9년째)	40세 시청공무원	아들(8세, 초1) 아들(6세, 미술학원 중일반)
장서희(35) 광주	시민단체 상근실무자 (총 9년, 결혼 8년째)	38세, 준공무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아들(8세, 초1)
서현아(40) 광주	한국야쿠르트 아줌마(자녀"서너살"부터)	43세, 토목건축 하도급자43	딸(12세 초5) 아들(10세 초2)
박미엽(30)** 진주	학원운영 (결혼 후 10년째, 남편과 공동운영)	38세, 학원운영	아들(9, 초등2) 아들(4, 어린이집)
김유빈(39) 진주	농촌생활지도사 (결혼 전 취업, 결혼 11년째)	42세 회사원	딸(12세, 초등5) 아들(11세, 초등4)
이루리(37)** 진주	중학교교사(결혼 전 취업, 결혼 후 7년째, 3년 휴직)	36세, 관사	딸(8세, 초등1) 딸(6세 유치원)
김준희(34) 진주	중학교교사 (결혼 전 취업, 결혼 후 9년째)	37세, 중학교교사	딸(8세, 초등 1) 아들(7세, 유치원)

\* 제보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명(假名)을 사용하였다.

\*\* 박미엽씨와 이루리씨의 남편도 심층면접하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면접시간은 최소 1회 두 시간 삼십분에서 최고 2회 총 네 시간정도 소요되었으며 녹취록은 제보자별로 20쪽에서 45쪽까지 다양하였는데, 대화의 속도나 면접 시간에 의해 차이가 났

다. 또 녹음 후에 계속되는 대화내용은 면접을 끝내고 간략하게 스케치하여 사용하였다.

두 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교 사무직원과 민간단체 실무자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와 야쿠르트 아줌마 즉 판매직이 각각 한 명씩 포함되어 있다.

### III. 맞벌이 가족자녀의 생활모습

#### : 그 속에 드러난 부부 책임의 한계

맞벌이 가족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들의 생활모습을 개략적이지만 재구성해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있는 애, 엄마가 일 나가고 집에 없는 애”로 양분된다. 제보자들의 자녀들은 엄마가 집에 없는 애이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어릴 때에는 엄마·아빠가 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아래 있고, 엄마가 집에 있는 자녀에 비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 후 스스로 돌보는 사람이 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린다. 먼저 학령전 미취학 아이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나서 학교에 들어간 취학한 아이들의 생활을 살펴보자.

#### 1. 학령전 아이들의 생활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유목민의 아이들처럼 어려서부터 이동이 잦다. 출산 후 애들이 “서너 살이 되자” 취업한 서현아씨 네처럼,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운 후에 시설에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일터와 집 그리고 시설이 가깝도록 공간 설계를 하고 취업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업을 지속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지속한 대부분의 경우, 어린 아이들은 자동차 타기 횟수가 현저히 많다.

극단적인 예로 윤희숙씨네 막내는 두 달이 지나 직장에 복귀한 엄마의 차에 사과상자에 실려 이모네 집으로 출퇴근하였다. 또한 제보자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출장이나 늦은 귀가로 다른 집에 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다. 잠을 자다가 깨워서 집에 데려가지는 경우도 있고, 잠들었기 때문에 맡겨진 집에서 아침을 맞기도 한다.

또한 ‘자녀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엄마의 생활시간이 조정’되는 전업주부가정에서와 달리 ‘엄마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이 조정’된다. 부모는 아침에 너무 빨리 아이의 잠을 깨우거나, 밤에 너무 늦게 잠을 자게 해야 한다.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다양하고 불안정한 대리 양육 때문에 새로운 대리모 그리고 새로운 공간 등에 거듭해서 적응을 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에는 어린 아이가 부적응하여 아이와 부모-특히 엄마 혹은 이전 양육자인 할머니 등-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보고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섯 시까지 하는 종일반에 들어간 경우에는 염려를 덜게 되어 부모로서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그러한 장시간 타아가 어쩔지 알 수 없다. 퇴근이 빠른 교사직 엄마는 종일반이 끝난 자녀를 집에 데려갈 수 있지만, 퇴근 시간이 늦고 불규칙한 직업의 엄마를 둔 경우

에는 미술학원과 같이 다른 한 곳을 더 거쳐야 집에 가게 된다. 반일반인 경우 누나나 형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의 가계에 가 있거나 외숙모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반일반 어린이의 경우 오후에 버스가 태워가는 학원을 두세 개 다니면서 ‘보호를 받도록’ 생활이 설계되기도 한다.

#### 2. 초등학교 자녀들의 생활

맞벌이 가족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자녀들의 생활모습은 상당히 달라진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스스로 돌볼 수 없다고 전제되므로 비교적 철저하게 보호 장치가 설계되지만, 맡기를 알아들으며 만약의 경우에 스스로 돌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미아와 방치의 상황<sup>4)</sup>에 이르기도 한다.

장서희씨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하교 후 할머니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도록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아이의 활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아이는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와 어울려 온 시내를 (서 너시간 동안) 돌아다니다 저녁에 들어오곤 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 장서희씨는 아이가 하교 후 공부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래층 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를 친 후 다시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아 귀가시키도록 아이의 생활을 다시 설계했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전제된 공부방의 비용과 피아노학원에 내는 비용은 본질적으로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불하는 돈이다. “공부는 고사하고 보호만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장서희씨의 생각이다.

윤희숙씨네 아이는 체육관에서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수영장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수영장스케줄이 변경되면서 차를 놓친 아이는 걸어서 저녁에 집에 도착하였다. 그 사이에 윤희숙씨는 미아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 후 윤희숙씨는 둘째 아이는 등하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차로 태워가고 태워오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안심하고 있다. 윤희숙씨는 나중에 퇴직하고 맞벌이 가족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사교육을 다 받도록 ‘자동차 태워다 주기’ 같은 봉사를 하는 방과 후 교사가 되겠다고 한다.

주변에 자녀를 돌봐줄 인적 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넉넉하게 시킬 형편이 아닌 야쿠르트 아줌마 서현아씨 같은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수업이 끝나면 귀가하여 오누이가 함께 지내는데 컴퓨터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엄마가 함께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생각 과, 엄마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력 그리

4) 전업주부 사례연구(김선미, 2004:43-60)에서 보듯이, 애가 오기 전에 집에 달려가며 학원을 챙겨 보내며 사교육을 잘 하고 있으나 자녀와 교사를 옆에서 관리 감시하는 전업주부 엄마를 둔 아이들의 상황과 대조된다.

고 자녀보호의 필요가 서로 맞물려 맞벌이 가족은 자녀들을 ‘학원 돌리기’로 대상화 하게 된다. 박미영씨의 아이는 배가 고프게 피아노 학원으로 가야한다. 맞벌이 가족 엄마의 염려는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쉬는 시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간식 섭취가 없이 학원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녀들은 엄마가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자부하게 되고 점차 맞벌이 가족의 생활양식에 적응해간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소득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서 소비의 중요성에 자녀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입장의 친구와 또 (여자)선생님도 엄마와 같은 입장이며 선생님의 아이들도 나와 같다는 점 등이 이해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가사분담을 어떻게든 하고 있다. 시간이 부족한 엄마의 식사준비를 돕기 위한 ‘양과 끼기’에서부터 ‘자기방 더하기 방 한개 더 청소하기’와 같은 가사분담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돌봄으로써 엄마 손을 덜어준다는 점이 그 것이다. 혹셀드(2001)와 같은 학자는 이러한 방식-스스로 돌보기-의 자녀에 의한 가사분담을 ‘일찍 어른이 되기’라고 부른다. 열쇠를 혼자 열고 집에 들어가는 김준희씨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나 오빠에게 간식을 주고 미술학원 차에서 내리는 동생을 받는 윤희숙씨네 둘째 딸(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함)이 그 예이다. 자녀가 가족의 중심이 되면서 점차 응석받이가 되어가는 것이 ‘남성-생계 별자, 여성-전업주부’라는 근대가족의 경향이라면 맞벌이 가족의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소결 ; 맞벌이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의 한계 - 잦은 이동과 양육자의 잦은 변경, 미아와 방치 그리고 그 두려움, 어린 자녀에 대한 금융적인 생활의 강요, 전업주부를 어머니로 둔 자녀들에 대한 부러움 등 -가 뚜렷하지만 사회적인 제도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누군가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체계가 움직이고 있다. 아버지의 가사노동 참여가 거의 완벽한 경우-김준희씨의 경우-일지라도 부모의 근무시간 중 어린 자녀들은 “학원을 두 군데 다니는” 대안 이상의 대안이 없다. 혼자 있어서 위험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휴식과 놀이는 생략된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바라는)적절한 영양섭취는 불가능하다. 이 점이 연구자가 보는 맞벌이 가족의 자녀 양육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복지를 과도하게 가족에게 위임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이제까지 공적 제도에 대한 가족의 요구가 싹트지 못하게 해왔다. 이미숙 연구(2004:186)의 사례<sup>5)</sup>에서는 국가의 지원에 대한 비평이 있었으나, 본 연구

5) 약사인 면접자는 역시 육아가 제일 힘들어요.....국가가 해결해야 하는데,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개인에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다.

의 제보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직 공보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sup>6)</sup>. 자녀는 가족의 성원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이며 차세대 노동력이다.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의 원인이 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데에서 공보육의 문제가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공보육의 보다 근본적인 정당성은 인적자본의 형성은 사회적 과제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맞벌이 가족의 생활모습에서 알 수 있는 자녀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보육체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 IV. 맞벌이 가족 자녀의 양육방식과 문제점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어떤 가족에게나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맞벌이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가중되며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동안의 자녀양육의 역사를 분석해 보고, 어떤 방식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그에 내포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녀양육방식에 나타난 다양성 ;

넓은 선택의 폭? 아니면 적합한 방식의 결여?

제보자들이 가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상황에 의해 자녀양육에 동원되는 방식이 달라졌으며 그 선택 과정에는 부모들의 가치관도 반영되어 있다. 제보자들은 어린 자녀가 자라는 동안 다양한 방식들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는데<sup>7)</sup>, 각 방식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에 의해 채용되었고, 다른 방식들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전 방식에 대한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자녀의 성장 시기에 알맞은 양육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갈만큼 영·유아의 공적 양육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때문에 한 사람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최선으로 여기는 부모로서는 양육방식을 변경한다면 보다 소극적인 이유-이전의 양육자의 질환이나 거부, 비용부담 등과 같은 이유-에서 변경하였다.

하루 종일 어린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는 시기가 지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에도 출장이나 야근과 같은 경우

6) 윤희숙씨는 법원 홈페이지에 서울에서는 직장 내 탁아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웠다는 표현은 하고 있다.

7) 서문희외(2004)등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통계자료(99)를 분석해 보면, 나이가 어릴 때 조부모등 혈연과 탁아모 등 비혈연에 의존하다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질적 연구인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의 일반적 체험과 일치한다.

간헐적으로 친척에게 자녀를 맡겼다.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정 간 상호교환과 같은 방식 혹은 지역 내에 마련된 시설을 통해 부모의 간헐적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맞벌이 부모는 야간과 주말에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자녀돌보기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였다. 보통 퇴근 후에 남편이 자녀와 놀아주거나 함께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아내들이 기대하는 자녀학습을 주관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박미엽씨네와 김준희씨네는 자녀 양육에서 남편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공립학교 교사로서 자주 이동을 해야 하는 김준희씨의 남편과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필요 없는 사립학교가 직장이므로 자신의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정하고 아줌마에게 맡긴 아이를 찾아오기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후에는 어린이집 차 태우고 내리기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김준희씨 남편은 그 밖에 가사일도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었으나 역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양육참여를 들고 있다. “애 키우기가 힘들어예.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맡겼거든요. 아무래도 그랬지예”

박미엽씨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수면습관 때문에 남편이 야간에 어린 자녀를 돌본 경험이 드러나 있다.

집안일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은 애 부분이지예. 집 사람은 잠자다가 한 번 일어나면 못 자는 스타일이라, 저는 눈 뜨고 애 해주다가 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예.

맞벌이 가정 부부가 직장에서 벗어난 시간에는 공유와 분담을 통하여 부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문제는 낮 시간 동안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가하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보살필 수 없는 낮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식으로는 첫째, 擴大家庭 네트워크(network)를 이용하기 둘째, 公的·私的 施設을 하기 셋째,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기가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첫째, 어머니의 직장 생활을 조정하기 즉, 휴직을 통해 어린 아이를 키우거나 휴가를 자녀 돌보는데 활용하기 혹은 회식과 같은 부수적인 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양육하기 둘째, 자녀들을 일찍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내기가 있다.

장서희, 윤희숙, 이루리, 박미엽의 경우에는 시댁 혹은 친정 부모님- 주로 어머님께 자녀를 맡겨 키운 후 공적·사적 시설로 변경하였거나, 공적·사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종합적인 관리를 시댁 혹은 친정 부모님께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서현아씨와 김준희씨 그리고 김유빈씨는 사적인 시설과 자녀의 스스로 돌보기 혹은 형제 돌보기에 의존하여 자녀를 양육해왔다. 김유빈씨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줌마에게 아이를 맡겨 키우고 자란 후에는 학원에 보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

다. 동거하는 친정어머니의 병환으로 김준희씨는 아줌마의 손을 거쳐 자녀를 양육하였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이 채택해 온 다양한 양육방식은 선택의 다양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최선의 적합한 방식의 결여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어머니들은 우선적으로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기대한다. 그러한 기대가 성공하는 경우, 맞벌이 가족의 어린 아이들은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외숙모 이모의 손에서 자란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용하는 나이가 되면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을 그러한 시설로 옮겨 적응기를 거치게 한다. 부모의 퇴근 시간과 양육시설의 하원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하원 이후에는 이전까지 보살펴주던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친척의 도움이 없이 키워온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 돌보거나 학원으로 맡겨진다. 초등학교에 간 맞벌이 가족은 ‘방과 후 자녀 돌보기’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특별히 맡길 데가 없고 또 스스로 돌보기에는 이른 나이가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학원으로 돌리기를 시작하며 아이가 조속해지도록 훈련한다.

## 2. 각 양육방식의 특성과 문제점

이제 각 양육방식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특성과 더불어 맞벌이 가족이 그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과 그러한 방식에 어떤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 1)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윤희숙씨 네는 친정(둘째까지는 친정엄마가, 그리고 셋째는 언니가)을 오가며 낮 시간 동안 어린 자녀를 키워내고, 저녁 시간에는 아내가 주도하고 남편이 도와서 자녀를 돌보았다. 친정 식구들은 윤희숙씨의 취업에 대해 ‘우리들은 해 보지 못한 귀한 기회’라고 여기면서 취업을 지지해주었다. 장서희씨는 시댁에 맡겨서 자녀를 키웠고 초등학교에 간 이후에도 엄마의 출근 이후부터 퇴근 시간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시부모님이 해 준다. 윤희숙씨네는 친정의 올케언니에게 자녀를 맡겨서 키웠고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윤희숙씨의 아이들은 방과 후 학원에 다녀온 이후 시간을 외숙모네에서 보낸다. 이루리씨는 큰 애를 친정어머니가 키웠고 어린이 집에 다닌 후 가게를 하는 시어머니가 데려가고 데려오는 식으로 키웠다. 지금도 시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방과 후에는 가게에서 돌봐준다. 박미엽씨는 친정어머니(74세)를 집에 모셔 아이를 키웠다. 김준희씨는 친정어머니께 맡겼는데 연년생이 나오자 ‘둘은 못 맡길 것 같아’ 보다 어린 아이를 아줌마에게 맡겨 길렀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바, 확대가족네트워크에

8) 장서희씨의 출근 시간이 아이의 등교시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아이는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간다.

의존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내포된 문제점은 비용의 문제와 착취의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양육자가 갑자기 양육을 중단하기 쉬운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맡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첫째, 비용의 문제를 살펴보자. 한 아이를 도맡아 키우는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 그리고 돌봐주는 시간이 바뀔 때 어떻게 비용을 조정해야 하나의 문제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와는 다른 가족관계에서 맞벌이 가족의 부부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된다.

둘째, 이 방식에는 착취의 가능성이 있다.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기댈 경우 무조건적 사랑이 전제된 보살핌 때문에 대리 양육자가 착취당할 수 있다. 자아실현과 개인주의적인 직장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금순씨는 친정오빠가 부모역할을 했다고 믿고 친정올케에게 두 아이를 맡길 뿐 아니라 본인의 식사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데, 윤금순씨는 페미니즘과 가부장제에 두루 기대면서 자신의 생활을 “이기적으로(본인의 이야기에서 동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함)” 꾸려가고 있다.

셋째, 이 방식은 자녀의 부모에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기댈 경우 분명한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자녀양육을 위해 대리 양육자와 동거를 하는 경우 받는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박미엽씨처럼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시어머니 눈치 보기, 친정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길러낸 후 나이가 들어 아프자 친정어머니와 함께 사는데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시어머니가 비난하는 것, 친정어머니와 잘 지내기 힘이 든다는 점, 말대꾸해 드려야 함, 간섭, 추가적 비용부담(옷 살 때 같이 사야하고...)등이 그와 같은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넷째, 양육자의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문제도 있다. 건강악화 등 긴급한 이유로 양육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할머니가 돌보기 때문에 아동의 질병이나 가정 내 안전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경우, 그리고 아이의 활동반경을 따라잡지 못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다섯째, 두 아이를 다 맡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기대어 양육한다는 것은 한 아이를 한 어른이 키우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로 연년생을 가진 경우 나누어서 맡겨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확대가족의 양육자는 나이든 시모 혹은 친정어머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맞벌이 가족의 관리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2) 공적·사적 시설을 이용하여 ; “학원으로 보통 다 돌릴걸요 (김준희)”

서현아씨는 야쿠르트 아줌마로 나서면서 교회의 탁아시설(선교원)에 두 아이를 맡겨서 양육하였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사무실에서는 빠른 출근을 요구하였다. 너무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선교원의 교사로서 시설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자녀들로 하여금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특별수업에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사설 학원에서 무술을 배우게 하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미엽씨는 저녁시간에 아이를 돌 볼 수 없어서 학원에 보내고 있다. 박미엽씨는 아이를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 보내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우리씨는 “학교 앞에서 시작하죠..학원 갔다가 다른 학원 갔다가...”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 윤희숙씨는 첫째 아이를 잃어버렸던 좋지 않은 기억으로 인해 방과 후 안전을 고려하여 둘째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안전하죠. 제 마음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차를 태워가지고 그 시간(작년엔 4시 올해엔 5시)이 되면 무조건 집에 오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죠.” 셋째는 종일반을 하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미술학원 차가 유치원 끝나는 4시50분에 여러 명 애들을 데려간다. 장서희씨는 아이가 친구와 어울려 방황하지 않도록 공부방에 보내고 다시 피아노 학원에 보낸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자녀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적·사적 시설에서 아이들은 다른 처지인 경우 소외감을 느끼고 같은 처지인 경우 호감을 느끼고 있다. 유치원의 종일반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자들은 전업주부를 어머니로 둔 아이들과 다른 느낌을 아이들이 받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반일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껴 싫어한다. 종일반 하는 것을 싫어한다.” 종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윤희숙씨네 셋째 아이는 같은 처지의 다른 아이와 함께 오후 다섯 시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원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 자녀를 시설에 맡겨 키우는 경우 문제점은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다. 조기출근 혹은 늦은 퇴근시 사정해서 어렵사리 무리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한 아이를 한 어른이 맡아 키우는 경우 아니면 최소한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와 달리 아동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 혹은 안전사고 등도 염려한다. 어린 아이를 시설에 맡길 경우 “같은 직장 동료의 시누이가 하는 곳이어서 안심했다”는 김준희씨의 이야기는 어린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일반적인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초등교육기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질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이 어렵고 집과 가까운가하는 접근성의 문제가 결정적이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원을 돌아다니는 경우 중간에 시간상 공백이 있거나 이동과정에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어머니들의 주요 고민거리이다. 또한 각 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부담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에 비추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장서희씨처럼 취업주부는 취업의 중단을 고려하게 된다.

3)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기

제보자들의 양육방식을 검토할 때,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아보육시설의 부재는 확연히 드러난다. 출생 직후부터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는 한 명의 성인에 의해 사적으로 양육되

어야 하는 현실에서 확대가족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아줌마' 양육자를 찾게 되는데 김준희씨가 그 경우이다. 김준희씨네는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사는 아줌마에게 아이를 맡겨 키웠다. "출퇴근 시간이 부담스러운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를 맡기기 쉽고 찾기 쉬운 같은 라인의 아줌마는 그만큼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김준희씨 남편의 이야기이다. 그 때문에 김준희씨 남편은 동료교사들에게 아줌마를 구할 때 아파트라인에 광고를 붙여 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김유빈씨도 "시댁과 친정의 도움이 모두 약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 후, 출산휴가 2개월이 지난 후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고 15개월째에 어린이집으로 그리고 그 후 유치원으로 맡기면서 아이를 키웠다.

제보자들에게 '아줌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高費用도 이 유가 되지만 1대1 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데에서 오는 부담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친부모처럼 혹은 조부모처럼 애정을 줄까" 혹은 "아이가 아플 때 엄마처럼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주된 염려거리이다.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동자처럼' 보살펴 줄까", "사고가 생겼을 때 부모처럼 대처해 줄 것인가"가 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병원가기와 같은 추가적 부락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퇴근이 늦어질 때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김준희씨는 "아줌마의 행동반경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는 경우 저녁시간에 양육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인데 이는 낮 시간동안의 업무부담에 따른 이중부담과 피로감의 표현으로서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는 경우의 특수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에 밤 시간에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의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확대가족네트워크에 맡겨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저녁에 데려와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같은 경우 아이는 반드시 데리고 자야한다는 남편들의 주장을 말하기도 하였는데, 저녁시간에 주로 아이를 돌보는 제보자의 경우는 이러한 남편의 주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의 휴식을 위한다는 이유에는 보다 적극 동의하였다.

#### 4) 어머니의 직장생활을 조정하기

맞벌이 가족이 자녀를 양육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취업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었을 때, 어머니의 휴직은 결코 고려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제보자 가운데 교사와 판사부부인 이루리씨의 경우(소득과 자산의 수준이 다른 제보자에 비해 높음) 유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그 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제보자들도 결코 휴직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루리씨의 시어머니는 딸만 둘을 낳은 이루리씨의 어린 자녀를 키워주지 않았으나 아들을 낳으면 키워줄 태니 셋째를 낳으라고 한다. 확대 가족네트워크의 활용에 있어서 가부장제의 흔적이 보이는지는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다. 이루리씨는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였을 때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경우나 휴직이 어려운 직장에 다니는 경우도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자녀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회식시간을 줄여 저녁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맞벌이 어머니들에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근무시간 이후 회식문화가 직장생활에서 여전히 중요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머니들의 잦은 결석은 직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업무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잦은 회식 늦은 귀가의 문화와 어머니역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도 맞벌이 어머니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혼자 일하는 서현아씨만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에 야쿠르트 배달을 잠시 쉬고 집에 들러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 5) 자녀들을 일찍 키워내 스스로 돌보게 하기

맞벌이 가족의 어머니는 자녀를 일른 어른이 되게 하여 스스로 돌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보살피게 하고자 하였다. 윤희숙씨는 둘째아이를 "긴장을 시켜버리니까 야생마 같던 아이가 잡혔다.....오빠는 6학년이 되어야야 하는 일-열쇠로 집을 열고 들어오는 일을 여섯 살 때부터 했거든요. 혼자 열쇠를 가지고 다니고 혼자 학원을 다니고 오빠도 챙기고 막내도 받고". 윤희숙씨는 여자아이인 둘째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면접 도중에도 끊임없이 둘째 아이가 자신의 일과 오빠의 일을 휴대전화로 의논해 왔다. 서현아씨네 큰 아이도 둘째 아이를 돌보고 또 스스로를 돌본다. 김준희씨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유치원생은 혼자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간다. "문을 잘 열어요. 애기한테 지가 잘 열고 들어오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12세가 되기 전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 사회의 위험수준이나 가치관 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와 달리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다. 즉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나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취업을 위하여 대비하는 전업주부를 면접한 결과(김선미, 2004)를 보면, 낳아서부터 엄마와 같이 지낸 전업주부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이 되는 10세부터 11세 나이가 되면 혼자 있을 수 있고 열쇠를 간수하고 집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엄마들의 의견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 연구의 사례에서 서현아씨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직후부터 그리고 윤희숙씨네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직후부터 스스로 돌보도록 요구되었다. 서현아씨네 아이들은 길을 잃어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 준 적이 많다고 한다.

혹셀드(2002)의 맞벌이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견해는 "풍부한 가족생활을 남겨주기 위해 부모가 가사를 분담하고 자녀를 위한 시간을 할애할 것"인데, 맞벌이 가족의 일반적인 금융



주의적 태도가 어린아이를 빨리 어른이 되게 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중역할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찍 성숙한 자녀에게서 관심을 철회해버릴 가능성은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잠재해 있다. 조속하게 스스로 돌보도록 요구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최소한의 필요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해도 성장기의 많은 시간들을 가지 있게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도외시되는 문제는 남아있다. 서현아씨의 자녀들은 학원에 다니는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한다는 것이 서현아씨의 큰 염려이다.

**소결 :** 이 장에서는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의 다양성과 각 방식의 특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맞벌이 가족은 자녀양육의 요구를 접근 가능한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모든 대안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제보자들은 하고 있다. 그러한 평가의 요지는 영아보육의 일차적인 대리인이 나이가 많은 조모라는 점 그 외의 대안은 경제적·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아줌마'라는 점이다. 또한 기존 유아보육기관은 직장생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성이 있는 출퇴근시간 혹은 출장과 같은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없고, 또 전업주부자녀들로부터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동의 안전사고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보다 염려가 되는 이슈였으나 부모가 키웠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게 되는 전환기의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이 이 연구의 면접결과 크게 드러났는데, 문제의 요지는 종일 가족 밖에서 양육되어오던 맞벌이 가족 자녀가 갑자기 반일반에 해당하는 학교프로그램으로 인해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렵다는 점이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사설 학원을 전전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맞벌이 가족 부모는 교육보다는 보호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호를 위한 비용을 과다 지불하면서도 시간적 공백과 이동에 따른 미아의 염려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미아와 방치'가 초등학교 저학년울 둔 맞벌이 부모의 심정이며 이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다양한 자녀양육방식이 있고 그 것이 대안으로 평가되고 수용되지만 각 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곡예를 하는 것(서현아씨의 딸)'과 같다. 제보자들은 '뒤돌아보면, 다시 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할 거 같다, 끔찍하다'는 것이 증언이었다. 보다 좋은 대안은 없을까? 출산율이 2005년 9월 현재 1.16명으로 낮아져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국가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주안점은 바로 영·유아의 공적 보육체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보호 교육 체계일 것이다. 그러나 출산장려의 시각에서만

이 아니라 여성의 취업을 지지한다는 시각 맞벌이 부부의 일과가정이 효과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각이 함께 취해져야 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공적 영·유아 보육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맞벌이 가족의 필요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맞벌이 가족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겠다.

## V. 양육지원 정책 제언

이 연구의 앞 장들에서는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에 관한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부가 책임질 수 있는 자녀 양육의 한계와 또 현재 사용하는 양육방식의 문제점이 가족의 시각에 비추어 뚜렷이 드러났다. 양육지원은 국가의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의 측면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서<sup>9)</sup> 양육지원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의 해소라는 급류를 타고 축적되고 있으며,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문제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한 논의 뿐 아니라 소수 연구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소외계층의 아동수당 책정을 포함하는 것까지 포괄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만 양육당사자인 가족의 필요가 반영된 양육지원정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첫째, 영·유아 보육 체계에 대한 제언

맞벌이 가족의 아동양육상황이 호전되기 위해 공보육 체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면접사례들로부터 영·유아 보육체계와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체계가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개별가정에 맡겨져 있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할지라도 경제적 고비용과 다양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가용성과 접근성을 지닌 공적 제도

9) 보육정책은 첫째, 가족정책의 측면에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역할을 보완하며 둘째, 사회복지측면에서 균등한 보육기회의 보장 및 빈곤의 예방을 포함하며 셋째,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고 인적자본의 유지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을 가지며, 넷째, 인구정책에서 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끝으로 교육정책의 측면에서 조기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과 축적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Jampert, et.al., 2003, 장지연외 2004: 144 그림 6-5참조).

10) 일반적으로 육아지원과 관련된 국가의 지원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산전산후 휴직제도와 육아휴직제도 혹은 직장보육제도 혹은 지역보육시설을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구명숙·홍상욱, 2005), 아동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실시하는 나라들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등 다양하다(이재인외, 2005: 72쪽 표6참조).

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출산직후부터 두세 살까지의 어린 자녀들을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는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장지연 등(2004)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현재의 보육시설은 취업모에게 도움은 되지만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낮고, 다양한 형태의 시간탄력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힘들다고 한다.

질적 연구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조부모 등 확대가족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이 없고, 또 탁아모 비용을 충당할 만한 별이가 아닌 경우에만 보육시설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도시의 빈곤층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 영아보육기관의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또한 확대가족네트워크의 이용이나 탁아모의 이용에 따르는 불안정성과 고비용 그리고 심리적 부담은 그러한 대안이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함축하는데 저비용의 안정되며 기관간 연계성을 가진 공적 체계에 의한 양육서비스가 이러한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다.

면접결과 드러난 보육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보면,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따라 탁아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혹은 원거리 출장 등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한 보육시간의 연장, 심야보육, 24시간 보육이 바로 그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이슈이외에 이동에 관한 이슈도 중요하다. 아동이 보육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부모가 할 수 없는 경우 대체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건강강정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체계는 아동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접근 가능성은 자동차가 없는 빈곤가계 혹은 이동이 잦은 직업을 가진 경우에 대중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거나 아동을 이동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친숙한 사람에게 의탁하여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다양한 염려-사고대비<sup>11)</sup>, 질병대비, 충분한 애정-를 줄여줄 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발달과 가족의 (변화하는)상황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둘째,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가진 맞벌이 가족을 면접한 결

과, 영유아의 보육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보육이 맞벌이 가족에게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방과 후 학교가 공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시점에서<sup>13)</sup> 자생적 방과 후 학교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동아일보 2005년 5월 12일자, 20여명의 초중학생을 보호하는 방과 후 교사에게 연간 1400만원이 지급됨)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학과공부이외의 독서나 노래 간식제공 등 매력적인 운영으로 아이들이 늘어나지만 차량유지비나 병원비까지 부담할 경우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부산일보, 2005년 5월 4일자).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방과 후 학원을 한두 군데 다녀온 후 특별히 친척에게 맡겨진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아니면 형제 자매가 함께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면접 자료의 분석결과 '학원 돌리기'는 부모에게 비용부담을 크게 하면서도 시간상 혹은 공간상 공백에 대한 염려를 제거하지 못했다. 학원이 끝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린 아이들은 시간관리능력의 미숙으로 학습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적극적인 휴식이나 영양섭취가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학원과 같은 사적 시설이 가까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또 학원이 있다고 해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맞벌이 가족의 자녀에게는 방과 후 공적 보육은 더더욱 절실하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우선 맞벌이 가족이 "다 보낼 수 있고, 다 보내고 싶을 정도로" 사교육시장보다 매력과 이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부모들이 사설 학원에 보내는 이유에 더하여 그러한 학원이용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효과까지 담아내야 할 것이다. 훌륭한 방과 후 전문교사<sup>14)</sup>와, 미아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또 교육(학습능력 유지 및 함양)과 보호를 포괄하는 프로그램, 가정과 같은 안락한 시설을 통해 아동의 필요를 채우고 부모의 염려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학습지도와 더불어 예능과 체육 취미활동을 포함하여 고르게 인성을 발달시키고 또 아이들이 신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학교의 과제를 마치는 일이나 준비물을 갖추는 일 등을 방과 후 교실에서 도와준다면 늦게 귀가하는 부모와 보다 완화된 방식의 상호작용을 할 수

12)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전체 아동의 31%라고 한다(시민의 신문 제 596호 17면).

13) 교육부의 안은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운영체계를 도입한다고 한다.

14) 윤희숙씨는 퇴직후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싶어 한다. 교사의 여성화에 따라 남성어른과의 경험을 주기위해 스웨덴에서 학급할아버지 제도를 실시하였듯이 취업경험이 있는 은퇴자들을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것도 경험에 근거한 심정적 개입과 보다 섬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할 만하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주교육대학은(전라일보, 2005년 4월 27일자) 사교육비경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생 보조 인력풀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와 같은 경우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 강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11) 울산소재 현대자동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2개월이 지난 영아 탁아가 가능하다. 모유를 짜서 먹일 수 있는 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전기저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 아동 비율은 1:3이며, 영아의 경우 안전사고가 가장 위험한 요소로 평가되는데 설립당시 영아반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는 교사를 감시하고 또 한 편으로는 교사를 보호한다. '영아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교사의 유기와 학대를 감시하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영아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사고발생시 혹시 어린이집에서? 라는 회피기제를 발동하기 쉬워 정확한 원인을 밝혀 교사를 보호하는데도 효과적이다(어린이집 창설과정을 지도한 ○○○대학교 보육전공 ○○○교수가 필자에게 직접 제공한 내용임).

있을 것이다. 또한 방과 후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을 가족이 데려갈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데려다 줄 수도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제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이른 등교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중 아동 돌보기도 포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로 지역을 분할하여 특수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학원에 보내는 맞벌이 가족 부모들의 우선 목표가 자녀의 안전한 보호이고 그에 더한 교육효과라고 할 때 비용을 과다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사교육비가 줄어 들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요컨대, 맞벌이 가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겨우 꾸려나가는 현재와 같은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며, 그 가운데 영아를 공적으로 양육하는 체계의 구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이 연구를 통해 거칠게나마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애환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안하였는데, 향후 보다 섬세한 연구와 정책의 개발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세계, 부모의 관심 진작에 대한 제언**

믿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적극적으로 할애하지 않고 외부세계에서의 성취만을 지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부모는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육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상위의 욕구를 가족단위에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면접 자료에서 취업모의 대부분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 자기개발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이미 부모가 없이 '생존'하도록 적응된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토대로 하여 자칫 자녀양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탐지 되었다. 자신의 개발뿐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하는 남편을 부추겨 더욱 바깥 세계로 나가도록 고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유와 분담을 기초로 한 적절한 부모역할-돌봄 혹은 보살핌 노동-이 배제되고, 부부의 취업을 지원하는 데에만 초점이 주어진 공적 양육지원체계는 부모의 방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복지를 감소할 위험도 내포하게 된다.

맞벌이 부모가 가정에서 보살핌노동의 의무를 다하고 또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취업의 중요성과 자녀 돌봄의 중요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면접 자료에서는 맞벌이 환경에서 자식 기르기에 대한 적극적인 설계가 없이 전업주부가정과 비교하여 결여된 부분만을 채우고자 하였고 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 동안 취업이 어려웠던 여성들 혹은 어렵게 지속한 경력을 반영하듯이

지속적인 외부세계에서의 발전의 논리를 성찰 없이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균형 잡힌 성찰이 이 부분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일-가정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균형 있게 설계한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친가족적인 기업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즉 야근이나 출장 야간 회식 등이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 적절히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면접대상 가운데 남편-아버지가 자녀를 주로 돌보는 경우도 있었으나<sup>15)</sup>, 비교적 시간사용이 자유로운 자영업과 교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기 어려웠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부부의 자녀양육 공유와 분담을 위해서는 맞벌이 가족의 부모부재시간동안 자녀들의 생활에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직장의 상황이 남성근로자의 돌봄의 의무 혹은 권리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부성휴가제도 근무의 회식문화의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 접수 일 : 2005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9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1월 20일

**【참 고 문 헌】**

구명숙·홍상욱(200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31-546

김선미(2004). **30·40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대응양식;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3), 17-29.

김태홍·김난주(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박혜경(2004).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새여성학 강의*. 동녘, 184-209.

서문희·김미숙·박세경·최은영·임정기(2004). **여성 사회 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민의 신문 제 596호.

이미숙(2004). 고학력 여성의 일과 스트레스. *일과 가족 사이*. 조은글터, 205-240.

이숙현(2004). 고학력 여성의 취업 중단과 재진입. *일과 가족 사이*. 조은 글터, 149-204.

15) 같은 연구대상 가정 내 부부간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분담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선미·장상욱(2005)을 참고할 것,

- 이영미(2005).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요구와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37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3-29.
- 이재인·김선미·김은정(2005). 소외계층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중간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장지연·이정우·최은영·김지경(2004). 일 가족 양립체계의 선  
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정책연구원 정책연구 보  
고서 2005-1.
- 조용환(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한지수·김준희(2005).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분석.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지**, 9(2), 41-58.
- 혹셀드, 알리 러셀 저(2002, 백영미 번역).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 이야기: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아침이  
슬.